

### “성공스토리 써 내려갈 것”... 2023년 전북도정 10대 역점 정책

# 새로운 전북 초석... 혁신·도약의 기회로

▲미래 성장기업 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민생경제 활성화

회화발전 특구를 활용한 첨단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차 부품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주도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한다.

1기업-1공무원 매칭 및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더 보완·발전시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상권 성장을 촉진한다.

대규모 지역펀드를 조성하고 TFS 운영사 유치를 통한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 등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전북경제 르네상스 도약

산성과 상생협력을 통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확대, 연구개발특구 기술 사업화 펀드 지원 등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수소·전기차, 자율차 중심으로 모빌리티 산업을 재편하여 주력산업의 친환경·스마트 대전환을 준비한다.

AI·빅데이터 인력양성, 바이오 융합소재 상용화 지원, 호남권 드론융합지원센터 구축 등 신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 모멘텀을 구축한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구조 전환을 유도한다. 전라북도 먹거리 통합센터 운영을 통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한다.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4대 클러스터 고도화를 이루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

전북도는 2023년 도정 운영방향 발표하면서 새로운 전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고 도전정신으로 다양한 성공스토리를 써 내려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도정 비전 하에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달려온 전라북도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2023년 한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계획이다.

전북도는 도민과 함께 전진·도약·옹호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10대 역점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년은 민선 8기 핵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새만금갯벌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중요한 한 해로, 전북도는 기업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 등 성장동력을 확보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 전북경제 전성기, 안전한 전북, 혁신·변화 선도를 위한 정책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 도정 각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중으로 K-푸드 산업의 세계화를 선도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인력 공급 확대를 통해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농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문화예술 일자리 지원사업 등 문화역량 강화로 문화산업 생태계를 혁신한다.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등 지역거점 문화시설 조성에도 힘쓴다.

전북을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를 발굴·육성해 치유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광분야 신규 일자리와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전북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으로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산해 나간다.

▲새만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명품 도시 실현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새만금산단을 적기에 조성해 기업유치에 힘쓴다.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홍보채널을 다각화한다. 3단계 수질개선 대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새만금의 깨끗한 물을 확보한다.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국제공항, 인입철도, 신항만 등 핵심 교통인프라 구축과 하이퍼튜브 종합센터의 예타 통과 등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자율과 상생으로 고도의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특별

### 올해 도정 10대 역점 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산업 생태계 대전환

미래농업 선도 농생명 육성

문화·체육·관광 산업 연계

새만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자율·상생 고도 자치권 강화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우를 받는 새로운 전북으로 거듭난다. 지속가능한 동부권 특화발전 계획수립으로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도와 시군의 성장과 활력을 견인할 수 있게 준비한다. 시군과 협력하여 세계스카우트캠프리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활력수당을 취업 청년에게는 지역정책과 자선행사를 지원해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한다.

전주~김천 등 동서남북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로 첨단교통체계를 구축한다.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복지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 실현

전북형 지역맞춤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취약계층이 보호받는 따뜻한 사회,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전북 복지지원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생계급여·교육급여 인상 등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과 저소득층 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전북형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보훈대상자 보상 및 예우도 강화한다.

남녀노소 누구나 든든한 계층별·세대별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인가구나 가족돌봄청년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

전북지역 재활병원 건립 등 지역안결형 필수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에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안착시킨다.

전북형 난임시술비 지원,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비롯하여 치매인식서비스 조성 등 도민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 이용·발전 가능한 회복·탄력의 생태환경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가계획을 반영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주민 상생모델을 만들어간다.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획득 등 생태자원의 국제브랜드를 확보하고,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산악 트래킹 코스 개발 등 동부산악권 힐링·생태 기반 조성을 통해 생태산업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다.

환경친화적 사전예고제를 통해 사업장부담을 완화하면서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해 자율환경 개선을 꾀한다. 친환경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를 확대 보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확대한다.

K-water의 상생협력사업을 본격화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도민이 누

릴 수 있는 명품하천 조성에 나선다.

▲365일 선제적 재난·안전 관리

민관 협력을 통해 선진화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분야별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식품·환경 등 민생 9대분야 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분위기 확산을 도모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위험요소의 선제적 발굴·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재난 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응원을 위한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하여 풍수해 생활권 종합경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추진한다.

소방교육대 설립, 119특수대응단 신설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재난대응 기반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AI) 119콜백시스템,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등도 운영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

도·시군·교육청·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교육 협치를 이끌어낸다. 분야별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농촌유학을 7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한다.

인구소멸 및 지방대학 위기에 지자체와 대학이 공동 협력 대응하여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 공모,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망 청년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치 및 대(對)의회 스킨십을 강화한다. 지역특화비자사업 운영을 통한 외국인 주민 유입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새로운 전북 가치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 콘텐츠 확대 및 도민과의 접촉률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는 5일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7일까지 연장하는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17일까지 열흘 연장... 6일 의결

### 안당 원내대표, 연장 합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0일 늘려 오는 17일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5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10일 연장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본회의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17일까지 1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기간 연장 처리를 위해 1월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3차 청문회 및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견해차를 보여 왔다고 전해진다. 여야 대립 속 기간 만료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졌다.

안당 원내대표 차원 협의에선 우선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부분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증인 관련 세부 논의는 국조특위 수준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 증인을 누구로 할 건지나 언제 열 건지, 재판 방지 대책을 위한 공청회는 언제 열 건지, 고서 채택은 어떻게 할 건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대립점 중 하나인 1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에 대해 협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란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1월9일부터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고 지금 북한 무인기 긴급 현안질이나 대북 규탄결의안 발의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지 않나"며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스

## “남원 공공의대 설립 올해 해결 의지”

민주 안호영 의원, 신년 대대민 인사차 전북도의회 방문

“공공의대 설립 문제, 당 핵심 주요정책으로 중요한 해결 과제

정원 활용한 우선 출범이 골자... 단독 처리까지 검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전북을 찾아 올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안 의원은 5일 신년 대대민 인사차 전북도의회를 찾아 가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우리 당의 핵심 주요정책이고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사안인 만큼 중요한 해결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의원의 지역구 전북도의원인 윤수봉(완주), 전용태(진안),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의원이 함께 했다.

안 의원은 “(공공의대와 관련) 국민



의힘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당의 의지가 있는 만큼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으리라 본다”며 “차이점은 우리는 의회 정원을 늘리지는 얘기가 아닌 정원을 활용해 우선 출범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지자부진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반복되는 얘기로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라며 “더 이상 지체하기 더 어려워 전북 의원의 뜻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언급이 되고 있는 단독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전북은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새만금 조세제 한특례법 등 전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최초 발의자로서 올해는 이법에 담긴 행정적 재정적 특례 등 구체적인 사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원은 지역구가 밀집한 동부권 발전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고 예산 반영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

## 민주 군산지역위 신년하례회 성료

### 내년 총선 승리 중추 역할 다짐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위원장 신영대 국회의원·사진)는 지난 4일 한일컨벤션에서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하례회에는 신영대 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강태창·김동구·문승준 의원, 박정희 전북도의원,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등 군산시 의원 21명과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핵심당원 100여명이 참석해 새해박담과 군산 발전, 더불어민주당의 2024 총선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다짐했다.



김경식 군산시 의원 사회로 진행된 신년하례회에서는 신영대 지역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임준 시장, 김영일 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민의 안녕과 군산 발전을 염원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역위원회 발전을 위해 앞장선 당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장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신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이 책임있는 자세로 대안을 모색하고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들고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며 민주당의 지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2023 국가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와 연도-이청도 항로 분리,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반영시켰다는 의정성과를 보고하고 “군산의 숙원 사업이었던 전북대병원 설립으로 군산에 질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군산 해결사’로서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겠다”고 천명했다. /군산=김관근 기자